



영세를 통해 모든 죄는 사함 받는데 한 달 후에 첫 고해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이후의 죄만 고백하면 됩니까?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부활의 삶이 시작된 만큼 첫 고해에서 지난날의 죄는 고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지난 죄를 충고해해도 좋습니다. 주님께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한 달 후에 첫 고해를 권하는 이유는 사목적인 배려입니다. 세례를 받아 새 삶을 살려고 다짐했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감안한 조치랄까요? 한 달 쯤이면, 죄를 짓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을 셈한 결과랄까요? ^^

고해성사는 세례의 은총을 정성으로 지켜내는 작업입니다. 뒤를 되돌아봄 없이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귀한 행위입니다.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권하는 이유이지요. 때문에 첫 고해는 부활인의 새 삶을 연습시키려는 의도로 이해하세요. 신앙인의 성장을 위해서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접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행위는 필수이니까요. 복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여 날마다 회심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속죄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니, 기쁘게 따르세요.

고해성사를 대하는 '진심'이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첫 고해로 단순한 용서의 차원을 넘어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나의 방패

(시편 3,2-9)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주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3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 2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3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 4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 5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 6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 주시기 때문이니
- 7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 8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 9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도록 청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환경 속에서 생기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생기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

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왜 나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에페 6, 16).

우리의 믿음이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있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주께 우리들의 구원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72장 “그리스도의 영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하는 사랑의 소공동체 |

- 문산본당 구역분과장 황 훈(요셉) -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산본당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잘 보존된 초기 모습으로 인해 성당을 찾아오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만든다.

문산본당 소공동체는 6개 구역 1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당에 4구역 10개 반, 공소에는 2구역 4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인담구역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 모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열심히 모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문산본당의 새내기 소공동체 충무공동1반을 소개하고자 한다.

2년 전부터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어 전입교우가 제법 늘기 시작했다. 혁신도시 신자 70%가 전입교우로 그들이 냉담하지 않고 문산성당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충무공동1반 소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전입교우 대부분은 예전에 다니던 본당에서는 열심히 신자였지만 새로 나오게 된 본당에서는 그 낯섬으로 인해 서먹함을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당신부님께서는 전입교우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교우들 간의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소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친교와 단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소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가족체육대회, 윷놀이, 토요일산행, 번개모임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충무공동 밴드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공유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갔다. 본당 차원에서도 반별 연도대회와 동산 가꾸기 등을 개최하여 시상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격려했으며, 매주 주일카페가 운영되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 한가족이 되어감을 느꼈다.

이제는 반구성원들이 스스로 신심단체나 제단체에 가입하여 본당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반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참여율이 높아 지난해 9월 부터 낮 반과 저녁 반 두 팀을 운영하고 있다. 반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18, 20)는 말처럼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단체환영’을 좋아하시는 주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